

“평가 받는 인생”

전도서 7:1-4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들은 살아 생전보다 죽음 이후에 더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세들에게 남긴 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명예를 재물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 7:1)

좋은 이름이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즉, 명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으려면 두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거나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선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원로원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의 흉상이나 동상이 철거되고 모든 저서가 불태워지고 돌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다 파내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 차세대 정치인부터 시인, 예술가, 교수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명예가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 사회가 정화되고 또 변화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판, 즉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 절 후반절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물론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다가 죽는 것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죄만 짓다가 의미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 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전 7:2)

사람은 누구나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초상집보다는 웃음과 기쁨이 있는 잔칫집에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초상집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 생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초상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단지 술, 담배 안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까요?

세상과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구별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고 섞이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거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술책이, 하나는 핍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교묘하게 섞이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one of gods)가 아니라, 오직 예수(only Jesus)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했을 때, 아이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그 중 좋은 짐승을 가지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잔인하게까지 느껴지지만, 우리는 조금도 악한 것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전염병이 나면, 그 주변의 모든 가축을 진멸시키는 것처럼 혼합될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배척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작은 틈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안에 믿음에 관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작은

타협을 허용하는 순간, 혼합주의의 독소가 들어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과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여러가지들 중 하나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말씀을 믿고 모험을 감행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좋은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을 추구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외형적인 겉모습에 치중한 평가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평가가 잘못된 평가였음이 드러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초상집에 가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의 죽음을 애도하는 초상집에 손님들이 찾아온다면,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2번 질문에서의 사람들에게서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평가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